

●●● 김영근 본회 감사/부산경남지회 육계분과위원장

## 육계농가의 자존심, 일반닭 사육을 지키자



김영근 감사는 선친이 물려준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소재 한우목장에 육계농장을 설립하고, 농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펜션, 찜질방,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Clean Farm)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1997년 IMF를 겪으면서 소값 하락 등의 어려움으로 소 방목을 포기하고 육계업과 인연을 맺은 이후 레저시설 경영과 함께 일반닭 사육을 고집하고 있는 김영근 본회 감사를 찾아 보았다.

◀ 김영근  
대한양계협회 본회 감사  
대한양계협회 부산경남지회 육계분과위원장

### 일반닭 사육을 고수한다

거제시(도)의 육계사육규모는 대략 150만수로 대부분 육계유통회사와 거래를 하는 소위 일

반 닭을 사육한다. 김영근 감사도 육계 6만수를 사육하고 있는데 육계유통상 경험을 살려 병아리 입식 및 육계 판매는 유통상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김 감사에 의하면 일반닭을 사육하면서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더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아리 선택, 입식시기 결정, 출하시기를 농장주가 결정하고,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입식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김 감사는 1년에 평균 3회 이상 일반닭을 키우고 있고, 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통적인 일반닭 사육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 1주일 한번 육계인과 회합

일반닭 사육은 지역간 육계인의 화합과 정보 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같은 지역은 1주일에 한번씩 있는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지회단위는 월례회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거제시 지역은 김영근 감사가 이장근 지부장과 유규식 총무, 이수복 감사와 함께 거제지역의 육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구구데이에 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하루 종일 우리 농가가 생산한 닭을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구구데이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국산 닭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또한 오는 10월에 경남 지역의 양계인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이날 부산경남의 모든 육계인이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 육계인의 자존심을 지키자

경남지역에 계열화 산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이 지역의 자구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계열화사업의 장점을 잘알고 농가입장에서 보



▲ 지난 6월 8일 개최된 부산경남지역 육계인 단합대회 모습

면 한번 사육에 실패한 자영농에서 위탁농으로 전락되어 결국 계열사의 직원이나 노동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김영근 감사가 지난 2001년 하림이 경남 지역 계열화사업을 목적으로 함안 도계장 신축을 추진할 때 당시 하림계열화사업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광영근 부산경남지회 육계분과 위원장과 함께 육계인들의 결사반대 의사를 이끌어 내어 경남지역에 계열화사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성사시켰다고 볼 수 있다.

김영근 감사는 10년 전 미국양계협회 회장을 초청하여 미국 육계농가의 생활수준을 알아본 결과 미국 내에서 중상층 이상의 삶을 누리고 있다고 듣고 난 후 우리 육계인도 미국의 육계농가처럼 중상층 이상으로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닭을 기르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후세들에게 심어주고, 이 업을 물려주기 위해서도 육계인의 자리를 굳게 지키자고 강조하고 있다. (정리 | 김종준 과장)